

GWANGJU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JULY 2017

www.gwangjufc.com



PREVIEW

뜨거운 여름과 함께 부진 탈출 한다

INTERVIEW

노력이 만든 송승민의 연속 출전 신기록

SHOPPING

광주FC 쇼핑몰이 싹 달라졌습니다!

FOCUS

공격력 강화 “맥긴, 완델손” 영입



노력이 만든

송승민의 연속 출전 신기록

광주FC의 주장 송승민(25)이 K리그 클래식 통산 최다 연속 출전 기록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승민은 지난 6월 28일 강원FC와의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이로써 그는 67경기 연속 출전을 했다. 이는 2013년 클래식 출범 이후 최다 연속 출전이다. 기존 기록이었던 권정혁의 66경기 기록을 넘어섰다. 또한 K리그 전체 역사를 통틀어 15번째로 많은 연속 출전 기록이다.

송승민의 연속 출장 역사는 2015년 8월 23일 제주 유나이티드전부터 시작됐다. 이후 그는 부상을 비롯해 경고 누적과 퇴장 등 모든 악재를 피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기량 향상에 노력한 결실이 대기록으로 이어졌다.

송승민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별명이 철인일 정도로 많은 활동량에도 쉽게 지치지 않았다. 송승민의 강한 체력은 기록 달성에 큰 도움을 줬다.

그는 “보약을 잘 챙겨 먹지만, 팀 동료들과 웃고 떠들면 마음이 편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뽐내지 않았다.

송승민은 강원전에서 골까지 넣으며 자신의 대기록 달성을 자축했다. 광주가 1-2로 뒤진 후반 26분 조주영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수를 제친 후 이어진 원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으며 기록 달성의 기쁨을 더했다.

송승민은 “(기록 달성은) 모르고 있었다가 경기 날 아침에 연락 받았다. 최다 연속 출전 기록은 큰 행운이자 복이라 생각한다. 경기에 뛰면서 기록 달성을 의식하지 않았다. 열심히 하다 보니 기록 달성을 이루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기일 감독도 “최다 연속 출전한 송승민의 활약으로 강원전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기록했다”며 축하했다.

송승민은 클래식 최다 연속 출전뿐만 아니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을 이루는 등 특별한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전 2시즌보다 좋지 않은 성적이 문제다. 베테랑 수비수 이종민을 대신해 주장 완장을 짊어진 무게는 상당히 무거웠다. 기록 달성에도 마음속으로 환히 웃을 수 없었다.

클래식 최다 연속 출전을 이룬 그는 앞으로 17경기만 더 연속 출전하면 장학영(성남FC, 84경기)이 보유한 K리그 통산 필드 플레이어 연속 최다 출전 기록과 나란히 한다. 34라운드까지 꾸준히 출전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기록보다 광주의 부활을 먼저 생각했다. 또한 팬들 앞에서 더 강한 책임감도 잊지 않았다. 송승민은 “순위는 밑에 있지만, 우리 광주는 반드시 클래식에 간류할 것이다. 비난보다 응원 해주면 재미와 함께 꼭 승리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경기를 할 것이다. 지켜 봐 달라”고 성원을 부탁했다.



뜨거운 여름과 함께 부진 탈출을 시작한다

5월에 이어 6월은 광주FC에 있어 고난의 시간이었다. 9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아픔은 이전에도 겪어보지 못했다. 부진의 시간이 길어지면 올 시즌 자체를 그르치게 된다. 하루빨리 부진 탈출을 알려야 한다. 7월은 그 시작점이다.

광주는 무승이 이어지면서 순위도 최하위인 12위로 떨어졌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광주는 무조건 승리를 따내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만 남았다. 그렇기에 7월에 맞붙는 상대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승점을 따내야 한다.

광주의 7월 일정은 쉽지 않다. 7월에 상대하는 울산 현대, 전북 현대는 현재 클래식 상위권 팀들이다. FC서울, 상주 상무는 중위권에 처해있지만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저력을 갖추고 있다. 광주는 7월의 마지막 경기로 맞붙는 전남 드래곤즈와의 올 시즌 상대전적이 2패다. 여러모로 광주에 불리하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광주는 손해 볼 것이 없다. 상대가 모두 한 수위이기 때문에 광주는 자신의 축구로 임하면 된다. 비록 결과는 무승부와 패배의 연속이지만 경기력 자체는 경쟁력을 보였다. 그렇기에 광주가 자신감을 갖고 젊은 선수들의 패기를 무기로 경기한다면 예상 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광주가 지난 4월 30일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것이 그 예다. 최강팀이라는 전북을 맞아 광주는 귀중한 승리를 했

다. 이번에도 충분히 재현할 가능성이 살아있다.

다른 상대도 마찬가지다. 서울에는 심판의 오심으로 패했다. 경기 내용이 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대등한 경기를 했다.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충분히 대등한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

광주가 서울을 상대로 순조로운 출발을 한다면 이후 경기도 한결 여유를 갖고 치를 수 있다. 쉽지 않은 상대들이지만 못 이길 만큼 어려운 상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뜨거운 여름 날씨는 젊은 패기를 닦았다. 이는 광주의 젊은 선수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광주가 부담을 덜고 경기에 임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FC 7월 경기 일정

7월 09일	19:00	vs FC서울	홈
7월 12일	19:00	vs 상주 상무	홈
7월 15일	19:00	vs 울산 현대	원정
7월 19일	19:00	vs 전북 현대	원정
7월 22일	19:00	vs 전남 드래곤즈	홈

현역 북아일랜드 국가대표 맥긴

광주FC 입단



광주FC가 창단 이래 최고의 경력을 가진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했다. 바로 북아일랜드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인 니얼 맥긴(29, Niall McGinn)이다. 178cm, 73kg의 다부진 몸을 지닌 맥긴은 힘과 스피드, 결정력을 두루 갖춘 전천후 공격수다. 양발을 사용하고, 전방과 측면 공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직접 해결 능력 뿐 아니라 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타적인 플레이도 강점이다.

맥긴은 북아일랜드의 축구천재로 불리며 19세의 나이로 국가대표에 발탁됐으며, 현재까지 A매치 50경기 3골 5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 유로 2016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썬기골을 넣으며 북아일랜드의 사상 첫 16강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센추리 클럽(A매치 100경기) 가입 경기였던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주목 받기도 했다.

2008년 북아일랜드 1부리그 데리시티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맥긴은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과 브렌트퍼드, 애버딘을 거치며 330경기 85득점 62도움을 기록했다. 그 중 애버딘에서의 활약은 폭발적이었다. 2012-2017까지 5시즌 가운데 4시즌에서 모두 두자리 수 득점을 하는 등 5시즌 동안 68골 54도움을 했다.

한국과의 인연도 있다. K리그에 북아일랜드 출신 선수가 이름을 올린 건 맥긴이 최초다. 하지만 국내 축구팬들에게 맥긴은 이미 알려진 이름이다. 2010/2011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세인트존스톤과 원정 경기에서 기성용, 차두리와 함께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여러 경기에서 국내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광주는 맥긴 영입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었다. 맥긴은 광주의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위한 마지막 카드나 다름없었다. 기영욱 단장이 정원주 대표와 상의 끝에 직접 북아일랜드로 건너가 선수와 교감을 나눴고,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맥긴은 "구단의 적극적인 관심에 한국행을 선택했다. 팀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다.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경기하고 싶다"며 "새로운 도전이다. 팀과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 기영욱 단장은 "맥긴은 광주의 창단 이래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외국인 선수다. 반드시 K리그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한다"며 "스코틀랜드 시즌이 끝났지만 지난달 월드컵 예선전에 나서는 등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 빠르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FC의 후반기 반전 카드인 브라질 출신 공격수 완델손이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은 필요하나 좋은 경기 내용으로 가능성을 내비쳤다.

광주는 올 시즌 최대 약점이었던 최전방에서 떨어지는 득점력과 무게감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완델손을 선택했다.

신체조건과 플레이 특성, 브라질 리그에서 성과를 봤을 때 기대는 크다. 185cm, 80kg의 다부진 몸을 가진 완델손은 빠른 발을 이용한 1대1 돌파와 수비 뒷공간 침투, 패스가 뛰어나다. 특히 순간 속도를 이용한 플레이와 페널티 지역에서 양발을 활용한 슈팅, 뛰어난 전방압박 능력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2017년 브라질 주리그 파라이바컵에 출전해 16경기 8골 12도움을 올렸다. 지난 2014년에는 브라질 주리그에서 17경기 10골을 기록하

며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경력도 있다. 골과 도움에 모두 능한 선수다.

남기일 감독은 “어떤 활약을 할지 궁금하다. 경기를 해봐야 안다. 필요한 자원이 만큼 투입해서 지켜볼 것”이라며 조심스러우면서도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완델손은 인천전에서 주현우, 송승민과 함께 스타톱 공격의 중앙에 위치했다. 전반전에는 동료들과 손발도 안 맞았고, 인천의 강한 압박 수비 탓에 눈에 띄는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전반 막판부터 후반전에는 기대했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송승민이 만들어준 1대1 기회는 인천 골키퍼 정산에게 막혔다. 이후 송승민과 여봉훈 등 동료들에게 정확한 패스로 기회를 만들었다. 최전방에서 부지런한 움직임과 몸싸움으로 볼을 받으려는 건 물론 동료들의 움직임을 살려주려 했다.

그러나 광주의 0-1패로 완델손의 데뷔전은 아쉽게 끝났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좋았기에 시간이 지나면 광주 공격에 확실히 녹아들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기일 감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플레이를 했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기였다. 완델손을 계속 기용할 생각이다”라고 만족했다.

올 시즌 광주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충분히 뒤집을 기회는 여전히 살아 있다. 완델손이 광주의 부활에 힘을 넣어줄 중요한 카드다. 그의 적응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송승민, 주현우, 김민혁 등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들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다. 빠른 적응으로 기대에 부응할 완델손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모습 드러낸 완델손, 광주 공격에 힘 실는다



광주FC 쇼핑몰이 싹 달라졌습니다!

광주FC가 2017시즌 후반기를 앞두고 새로운 구단 상품들을 출시했다. 선수들이 착용하는 홈, 원정 유니폼은 기본이고 응원용 머플러, 사인볼도 새롭게 내놨다. 또한 올 여름 광주의 야심작인 옥스포드 블록은 모든 팬들의 사랑을 받을 상품이라 자신한다.

광주의 구단 상품은 현장 구매 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현장 판매는 광주월드컵경기장 남문매표소 앞에 설치된 부스에서 한다.

2017 광주FC 니트 머플러



정가 24,000원 → 현장 할인 18,000원

광주FC 보조 배터리



정가 23,000원 → 현장 할인 18,000원

2017 광주FC 페넨트



정가 28,000원 → 현장 할인 20,000원

광주FC 장우산



정가 24,000원 → 현장 할인 20,000원

광주FC 옥스포드 블록



정가 30,000원 →
현장 할인 24,000원

광주FC 우드 탁상시계



정가 19,000원 → 현장 할인 16,000원

2017 사인볼



정가 15,000원 → 현장 할인 12,000원

광주FC 랜야드



정가 4,000원 → 현장 할인 3,000원

광주FC 소이 캔들



정가 14,000원 → 현장 할인 12,000원



감독 남기일

1974.08.17



수석코치 이정효

1975.07.23



코치 마철준

1980.11.16



골키퍼 코치 기우성

1978.06.17



피지컬 코치 후비오

1987.03.30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DF 홍준호

1993.10.11 192cm/85kg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FW 안델손

1992.05.31 185cm/80kg



MF 이우혁

1993.02.24 184cm/69kg



MF 맥킨

1987.07.20 178cm/73kg



FW 나상호

1996.08.12 173cm/70kg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DF 이순민

1994.05.22 178cm/72kg



FW 송승민

1992.01.11 187cm/77kg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DF 정동운

1994.04.03 175cm/70kg



FW 이종서

1995.06.09 175cm/73kg



DF 이한도

1994.03.16 185cm/80kg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FW 정영총

1992.06.24 180cm/70kg



MF 김민희

1992.08.16 183cm/71kg



MF 임대준

1994.05.04 177cm/70kg



DF 황인희

1995.05.06 191cm/77kg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MF 여봉훈

1994.03.12 178cm/70kg



DF 김지수

1994.08.16 177cm/70kg



GK 윤평국

1992.02.08 189cm/85kg



MF 와다

1994.10.30 170cm/60kg



MF 본즈

1990.02.07 187cm/80kg



DF 정호민

1994.03.31 188cm/79kg



GK 박형민

1994.04.07 189cm/80kg

광주FC SNS 채널



@GWANGJU_FC



www.facebook.com/gjfc2010



플러스친구 "광주축구" 검색



gwangju_fc

2017시즌 홈경기 일정

NEXT

7월 9일(일)
19:00



vs FC서울

7월 12일(수)
19:00



vs 상주 상무

7월 22일(토)
19:00



vs 전남 드래곤즈

8월 5일(토)
19:00



vs 수원 삼성

